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10. 6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쿠르드노동자당(PKK), 튀르키예 도심에서 폭탄 테러 시도
 - 10.1 튀르키예 내무부는 앙카라 도심의 내무부 보안총국 앞에서 테러범 2명이 차량폭탄 테러를 시도했으며, 용의자 1명은 자폭하고 나머지 1명은 경찰과 총격전으로 사망했다고 발표
 - ※ PKK가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했으며, 튀르키예 국방부는 이라크 북부 메티나·칸딜 등 지역에서 테러리스트에 대한 공습을 발표
- EU, 유럽에서 극우 테러 위협 증가 경고
 - 10.2 「일바 요한슨」 EU 집행위원은 '대테러 자금 조달 포럼'에서 유럽 내 극우 극단주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, 테러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

미주

- 美-케냐, 대테러 협력 등을 위한 방위 협정 체결
 - 9.26 언론은 불안한 동아프리카 치안 유지를 위해 美·케냐 양국이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, 테러단체 알샤바브 퇴치를 위한 협력 등 향후 5년간 공동방위를 약속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
 - ※ 아프리카 순방 중인 「로이드 오스틴」 美 국방장관은 24일 지부티와 소말리아 대통령을 만나 극단주의 세력 소탕을 위한 대테러 협력 방안 등을 논의
- 美 캘리포니아주, 총기 업계에 추가세금 부과 등 규제강화 법안 시행
 - 9.27 언론은 「개빈 뉴섬」 美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총기 제조업체와 유통업자에게 총기·탄약 판매액의 11%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
 - ※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총기 업계에서 거둬들 세금을 학교 안전과 총기 폭력 예방 등 다양한 총기 안전 대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부언

아 · 태평양

○ 韓, 울산·강원·충북경찰청 특공대 창설

- 9.21 경찰청은 울산·강원·충북경찰청 경찰특공대를 창설함으로써 40년 만에 全 시도청에 특공대 창설을 완료했으며, 신속한 테러 대응은 물론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것이라고 발표

○ 아프가니스탄, ISIS 감시용 카메라 네트워크 구축 진행

- 9.25 언론은 탈레반이 아프간 도심지 일대의 ISIS 활동 단속 및 치안 유지를 위해 대규모 감시카메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와도 협력을 논의했다고 보도
- ※ 탈레반은 과거 미국이 설치한 감시카메라도 보완해 활용할 예정이며, 카불 등 주요 도시에는 최소 6만 2천대의 카메라가 既 설치되어 있다고 발표

○ 파키스탄, 이슬람 사원 2곳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57명 사망

- 9.30 언론은 파키스탄 발루치스탄州와 카이버팍툰과州 이슬람 사원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57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,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
- ※ 경찰 관계자는 이슬람 예언자의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 인파가 모여든 사원 근처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사상자 수가 더 많았다고 부언

아프리카

○ 소말리아, 검문소에서 차량 폭탄 테러로 73명 사상

- 9.24 언론은 아프리카 소말리아 히란州 벨레드웨이네市의 검문소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21명이 사망하고 52명이 다쳤으며, 부상자 중 17명은 위독한 상태로 모가디슈로 이송됐다고 보도
- ※ 同 테러의 소행을 주장하는 무장단체는 없으나 이 지역은 최근 알샤바브가 소말리아 정부軍을 겨냥한 유사 형태의 공격이 자주 발생

인도 잠무 카슈미르, 의회 차량 폭탄 테러

- '01.10.1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의 중심도시인 스리나가르市 의회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
 - 테러범 한 명은 SUV 차량에 폭발물을 채워 정문으로 돌진하고, 다른 두 명은 의회 건물 내부를 점거하고 7시간 동안 농성
- 테러단체 '제이쉬 에 모하메드(JeM)'가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으며, 파키스탄 국적의 「와자하트 후세인」을 자살 폭탄 테러범으로 지목
-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美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사회에 테러단체 압박을 비롯한 협조를 요청
 - 파키스탄 대통령 「페르베즈 무샤라프」는 자국 영토에서 활동하는 테러리스트는 없으며,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공격과 무관하다고 발표
 - 美 국무장관 「콜린 파월」은 이번 공격을 '명백한 테러이며 우리가 단결해 대응해야 할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행위'라며 강력히 규탄
 - UN 사무총장 「코피 아난」은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테러단체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거부해야 한다며 테러 공격을 규탄

테러 단체

Weekly Terrorism Trends

< 제이쉬 에 모하메드(JeM) >

- (결 성) '00.3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의 파키스탄 귀속과 아프간內 외국군 축출을 위해 결성 * 테러단체 지정 : UN('01.10), 미국('01.12), 영국('01.3) 등
- (활동지역) 인도령 잠무-카슈미르州, 파키스탄 편잡州·페샤와르市, 아프가니스탄
- (조직규모) 500여명 추정 * 지도자 : 「마수드 아즈하」('68.7.10生)
- (활동수법) 인도軍 기지 등 하드타겟 공격과 군·경 또는 비무슬림(시아파, 기독교도 등) 살상 자행
- (주요테러) · '01.10 인도령 카슈미르 중심도시 스리나가르市 의회 자폭테러(사망 38명)
· '16.9 인도령 잠무-카슈미르州 '우리'지역 주둔 인도軍 부대 기습(사망 48명)
- (참 고) · '08.6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활동 집중에 따른 조직원 반발과 헤이슬람 무장단체와의 마찰로 근거지를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까지 확장